

# 직업계고 학과 미리 체험

### 도교육청, 중학생 학과체험교실 운영... 올해 도내 직업계고 31곳서 총 105과정 운영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중학생들에게 직업계고 학과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주무과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중학생에게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계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직업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중학생 학과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중학생 학과체험교실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실습실을 활용해 전공 과목을 직접 체험하는 것으로, 올해 도내 직업계고 31개교에서 총 105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도교육청에서 사전 배부한 중학생 학과체험교실 안내서 또는 전북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 탑재된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특히 중학생 학과체험교실 안내서는 각 학교별 학과 소개와 프로그램 및 세부 계획을 자세히 안내해 일선 중학교에서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전주생명과학고 스마트팜학과의 '스마트팜 만들기', 군산기계공고 기계시스템제어과의 '우드트레이 만들기', 원광보건고 반려동물과의 '도그위커 직업체험',

김제농생명고 바이오식품과의 '고체향수 만들기' 등이 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중학교는 오는 14일까지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직업계고로 신청하면 된다.

이강 청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직업계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중학생 학과체험교실을 운영하는 직업계고에서는 체험 전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성 기자



제1기 전북학생의회 개원식. 지난 6일 전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3년 제1기 전북학생의회 개원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과 학생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신명나는 전주교육... 학생 요구 실현 최선”

### 전주학생의회 개원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은 7일 전주청소년자치문화공간 우술에서 2023년 제1기 전주학생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학생의회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서거석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학생자치 문화를 꽃피우기 위한 초석이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영분과 9명, 교육분과 7명, 인권분과 7명, 학생생활분과 6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전주학생의원 20명은 각자 분과별로 활동하면서 인권 교육, 학생생활 분야에 대한 전주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교육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만수 교육장, 김명지 교육위원장, 전주시의회 이병하 부의장 등이 참석해 학생의원들을 축하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전주청소년자치문화공간 우술에서 2023년 제1기 전주학생의회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학생의회 초대 의장에는 완산여자고등학교 지수진 학생이 선출됐다.

지 의장은 "신명나는 전주교육을 위해 다양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미있는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수 교육장은 "학생의원 여러분이 전주의 학생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달을 것"이라면서 "학생의원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런 세계시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교육과정 연계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

### 도교육청, 고1~2 담임교사 대상...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등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7일 전주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교육과정 연계 진학지도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전북지역 일반계고등학교 1·2학년 담임교사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학생부 기록이 중요시되는 입시 경향에 맞춰 진학지도와 연계한 학생부 작성법을 교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서울 보성고 배영준 교사와 전북교육청 조정성(전주고) 과학교사가 참여했다. 배 교사는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 방법을, 조 교사는 2024학년도 대입 학생부종합

전형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한편 2024학년도 이후의 입시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자기소개서가 폐지되고 학생부 대입 반영 항목이 축소되면서, 전공과 연계한 선택과목 이수 여부와 주제 탐구 등의 교과 연계 활동 등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강세웅 진로진학담당 장학사는 "대입에 반영되는 학생부 기록이 축소되면서 교사들이 학생부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1·2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부 작성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익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대상 학생 교육서비스 지원 힘쓴다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복희)은 지난 7일 관내 지역사회유관기관 대표들과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복희 교육장, 박영근 교육지원과장, 서기문·김윤미 장학사, 익산시청소년성문화센터 이숙민 센터장, 익산제일커피바리스타학원 이우식 원장, 전북제과직업전문학교 김관식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교육적 지원 및 진로직업프로그램 운영과 발전을 위한 상호보완을 약속했다.

김복희 교육장은 "지역사회유관기관들과의 교육협력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맞춤형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더불어 실질적인 교육지원 확대 등을 위한 상호협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 급성 전골수상 백혈병 고위험군 선별, 치료전략 마련 연구

### 전북대 김수현·정지에 학생, 국제혈액학회 '최우수연구상'

전북대학교 김수현·정지에 학생(의대 분과 4년·지도교수 임호영)이 국내외 약 35개국 1,100여명의 혈액학 분야 임상 및 기초연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개최된 국제혈액학회(ICSH)에서 급성 전골수상 백혈병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해 최우수연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1년 여 간의 준비 및 분석 기간을 거쳐 '새롭게 진단된 급성 전골수상 백혈병 환자의 조기 사망 예측에 관한 위험-계층화 분석'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이 상을 수상했다.

급성 전골수상 백혈병은 성인에서 발생하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한 아형으로 다른 아형들과 달리 첫 진단 시 혈액 응고계 이상이 흔히 동반하며 초기 합병증의 비율이 높으나 적절한 치료를 통해 완치의 가능성이 높은 질환이다. 따라서 초기 합병증에 따른 조기 사망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치료 전략이 이 질환의 예후 향상

를 뇌출혈의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혈장 및 혈소판 수혈과 함께 기저 혈액 응고 이상을 조절하기 위해 가능한 조기에 표적약제(ATRA) 투여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또한 다변량 분석을 통해 65세 이상의 고령, 초기 백혈구 8,000/L 이상 증가 및 표적약제(ATRA) 지원 투여가 조기 사망의 주요한 위험인자임을 확인, 이를 기반으로 위험-계층화 모델을 개발해 30일내 조기 사망률이 약 40%를 넘는 고위험 환자군을 선별해 낼 수 있었다.

이번 연구 지도를 맡은 임호영 교수(혈액종양내과)는 "국내 급성 전골수상 백혈병 환자에 대한 대규모 분석을 통해 조기 사망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고 향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료 전략 개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한 점이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라며 "특히 이러한 연구를 의과대학 학부생들이 훌륭히 진행해 발표한 점이 우리 대학 학생들의 높은 수준의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는 최근 진수당에서 제12기 최고위과정(ACE) 입학식을 갖고 올해 교육과정을 본격 시작했다고 전했다.

## 전북대 최고위과정 12기 입학식

###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 60명 입학... 26주 학사 일정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최근 진수당에서 제12기 최고위과정(ACE) 입학식을 갖고 올해 교육과정을 본격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입학식에는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본부 보직교수들의 총동참회 임원, 그리고 교육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과정 소개와 입학 선서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과정에는 지방의원과 주요 기관장 기업인 등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60명이 참여한 가운데 리더십과 기업경영, 국가 안보, 인문 교양, 골프, 와인 특강 등이 이어졌다.

양오봉 총장은 "최고위과정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첨단시설을 습득하고, 다양한 교내·외 프로그램과 함께 휴먼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장으로서 지역 내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며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품격을 갖춘 네트워크 장이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우수학교 현장 연수

도교육청, 27개 학교  
업무담당자 80여명 대상  
남원국악예고 등 방문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교 공간 조성 우수학교 현장 연수에 나섰다.

지난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27개교 업무담당자 8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교과교실제,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 우수학교 현장 연수를 진행했다.

이는 사용자 참여 설계 중심의 공간 조성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선진 사례 공유를 통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래 사회 역량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교수 학습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역점을 뒀다.

우수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남원국악예고등학교는 사용자참여 설계를 통해 교무실 재배치로 공간을 확보하

## 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개방지원 사업 선정

### 우석대, 2년 연속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2년 연속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학교체육시설 장애인 이용 개방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석대학교는 체육학과 조현철 학과장과 김현룡 교수를 중심으로 장애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 체력증진 체육교실 운영과 함께 특수체육 특강, 장애 유형별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는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사업비 1800여만 원을 지원받아 오는 12월까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천현 총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대학교는 그동안 대학의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체육과학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재능기부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해 장애인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남원교육지원청, 시의회와 교육협력 간담회 개최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신병기)은 지난 7일 나무스 카페에서 남원시의회(의장 전경기)와 교육지원청 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남원시의회와 교육지원청 간 '교육생태계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신병기 교육장의 일반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남원시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남원 시지역 초등학교 2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한 중학생 바우처 지원 △남원시 면지역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해외 진로 체험 지원 △남원시 여학생 위생용품 구입을 위한 바우처 지원 △중고등학생 버스비 지원 등 6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전북교육청 2023년 핵심정책 중 하나인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 충남 정산중학교 사례 소개를 통해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정은성 기자·남원=김기두기자